

희망의 종교인, 김교신

김 신 (배재대학교)

초 록

현대인은 소위 희망이라는 종교적 테마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 인류가 종교로부터 얻어온 두려우면서도 위대한 경이로움의 기억(Numinose)과 종교로부터 파생된 유무형의 가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오늘이라는 ‘현재시점’에 집중하는 것이 이른바 현대인(modernist)이다. 이들 현대인은 곳곳하게 스스로를 비종교인, 무신론자로 칭하며, 이들이 삶을 영위하는 곳에서 종교는 비근대성과 인간억압의 상징으로 규정되었다. 현대인의 종교관은 종교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무관심을 넘어 ‘종교적 문맹’(religious illiteracy)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비단 과학과 합리성, 즉 문명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현대인의 냉담한 태도는 결국 종교가 원형적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날(the sacred day)이면 성당과 교회 그리고 모스크로 향하고 있다. 이들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현대인이자 동시에 종교인(homo religious)이라는 이중적 존재들이다.

김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앙과 삶의 ‘조화로움’이다. 당시 외래종교라 할 수 있는 기독교를 선교사와 교권을 가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다수 민중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점을 자각한 후, 일찍이 기독교의 원형적 정체에 대해 고민한 이가 바로 김교신이다. 이것은 현재에도 그 정체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적 기독교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이기도 하다. 김교신이 1942년 <성서조선>에 쓴 ‘조와(弔蛙)’는 ‘얼어 죽은 개구리를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혹한에도 살아남는 민족적 생명력의 메타포를 상징한다. 일본제국주의가 절정으로 치닫고 희망이 사라진, 어두움이 가장 짙은 바로 그 때, 역설적으로 김교신은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희망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망의 때를 기다리는 김교신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유리된 존재였다. 그러나 불순한 행동가이자 사상가가 걸어간 그 길을 통해 우리는 희망이라는 비합리적이고 불확실한 테제를 갈구하는 종교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제어 : 김교신, 희망, 종교, 종교적 문명

희망의 종교인, 김교신

김 신 배재대학교

I. 서론

기독교를 받아들인 초기 한국개신교인들 가운데 소위 서구식 기독교에 일방적으로 경도(傾度)되기보다 ‘한국식 기독교’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군의 선각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중에서 대표적 인물이 바로 김교신이다. 한마디로 김교신은 무(無)교회주의로 상징되는 ‘조선식’ 기독교, 나아가 ‘본질적 기독교사회’의 실현을 소망했다. 그는 삶을 통해 기독교를 실천했고, 동시에 맹목적 교조주의로의 함몰(陷沒)을 경계했다. 본고에서는 민족적 기독교, 한국적 기독교, 나아가 전적(全的)기독교라 불리었던 김교신의 다양한 사상의 갈래 가운데 특별히 ‘희망의 종교인’이라는 테제로 종교인, 김교신의 사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II. 서구의 기독교로부터 조선(한국)의 기독교로

1. 기독교는 타자의 종교인가?

기독교는 본래 우리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우리는 기독교를 외래종교로 지칭하곤 한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 된지 이미 200 여년이 넘은 현 시점, 기독교라는 개별종파가 여전히 타자의 것이라는 관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흔히 우리의 전통종교로 일컬어지는 불교와 유교 역시, 엄밀히 말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이른바 외래종교들이다. 그러나 전래시기가 기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나

유교 등 이른바 ‘전통종교’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 없이 ‘우리의 것’으로 인식하곤 한다.

종교는 하나의 ‘문화형식’이다. 그리고 종교는 다른 문화적 실체와 달리 물리적 속성과 더불어 믿음이라는 정신적 영역이 개입되는 존재론적 ‘차이’를 담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종교는 동태(動態)적 성질을 지닌 문화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 등장한 다수의 종교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외부로 외연확대를 시도하곤 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의 ‘포교’ 내지 ‘선교’행위로 설명한다. 그런데 종교가 유발하는 소위 ‘접변(acculturation)’현상은 기존의 종교적 전통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종교 세력이 기존의 것을 대체하거나, 역으로 이미 존재하던 믿음체계에 의해 외부로부터 전파된 종교가 수렴되는 형식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적 과정과 달리 외부의 종교문화와 기존종교문화가 서로 융합된 후, 내용적 변이를 통해 제 3의 것으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종교지형’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여하튼 외부로 전달된 개별종교의 정체성은 처음의 모습과는 다른, 내용적 차이를 가지게 된다. 즉 특정종교가 일체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고유한(original)형식과 내용을 유지한 상태로 외부세계에 온전히 착종(錯綜)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전제라 할 수 있다. 전술했듯 기독교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유입된 종교이다. 동쪽과 서쪽의 경계, 이른바 현재 중동으로 불리우는 로마제국의 식민지 변방에 불과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핍박받던 히브리인, 그 중에서도 단지 극소수 히브리신도만이 신앙했던 기독교는 차츰 시간이 흐르며 핍박의 주체, 로마제국을 점령하고 이어서 전 유럽을 정복한 후, 마침내 서구인의 정신세계를 잠식하게 된다. 서서히 권력화된 기독교는 서구사회 내부에서 종교개혁이라는 내적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구교와 신교의 갈등상황이 초래한 기독교 세계의 재편, 즉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신대륙에 정착한 근본주의 청교도를 중심으로 이제 거꾸로

동진(東進)을 시도하게 된다. 기독교가 태동된 중동을 시작으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인도를 지나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을 거쳐 마침내 기독교는 ‘우리 땅’에 전파된다. 당시 기독교를 받아들인 한국사회는 급진적 기존통치체제의 변화, 신분제의 철폐등과 같이 하루아침에 어제의 가치와 규범 따위가 전도(顛倒)되는 사회적 변이를 경험하고 있었던 과도기적 상황이었다. 말 그대로 시대의 ‘역동성(dynamics)’이 가장 활발한 시기, 우리사회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정신적 가치’를 지키며, 동시에 고고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낡은 유교적 관성을 극복해야만 했다. 이런 역동적 전환기에,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도달한 기독교는 조선의 민중들에게 낯선 ‘믿음체계’의 적응과 더불어 ‘토착화(土着化)’라는 과제를 던져준다.

2. 김교신의 한국식 기독교

전통적 유교사회출신의 청년 김교신은 일본에서의 유학을 통해 이른바 선진문물을 경험하고, 특히 지리학을 전공함으로써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세계를 인식하는 객관적 방법론을 배우게 된다. 당시 지적 호기심이 왕성했던 청년 김교신은 노방전도를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교회 내부의 알력 등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을 목격한 김교신은 우찌무라간조(內村鑑三)의 영향아래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 천착(穿鑿)하게 된다. 그는 막연한 고민의 순환에 빠지기보다 보다 깊이 있게 성서를 연구하기 위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며 기독교의 본질에 더욱 심취하는 길을 택한다. 당시 근대인으로써 그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일본인보다도 더 지적인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어로 수업을 하며 민족과 기독교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친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시대적 사명감으로 성서조선을 발간하며 진정한 한국적 기독교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였다.

김교신은 외부, 즉 서구로부터 전달된 기독교를 이제 조선식(한국식), 그의 표현대로 김치냄새 나는 ‘조선의 기독교’로 토착화 시키고자 했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김교신은 기본적으로 유교나 불교의 가치와 전통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특히 유교가 가진 전통적 가치를 긍정하면서 동시에 이상적 기독교 사회의 구현을 희망했다. 그렇다면 김교신에게 있어서 유교와 기독교의 연속성과 단절점은 무엇이었을까? 김교신이 유교의 수행의 자세를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계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해 김교신의 수행의 원리는 이미 유교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유교가 지향하는 도덕적 세계의 도달, 즉 자기완성이라는 정신적 이상주의를 포기한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움을 통해 자기를 비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추구함으로써 기독교적 수행정신을 실천한다. 이는 김교신이 지향하는 주체성이 이미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향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결국 내적으로 과거의 정신적 이념, 유교를 극복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¹

김교신이 생존했던 당시 한국교회는 평양이 제 2의 예루살렘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종교적 반성 내지 신학적 고민이 자리할 틈도 없이 ‘예수천당’을 외친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섰고, 이러한 교세의 확장을 목격하며 한국교회의 성장의 견인차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당시 서구선교사들에게 피선교지 가운데 한국은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대부분 서구출신 선교사들에게 그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 즉 식민체제는 선교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하나의 종속변수 일뿐, 독립변수는

¹ 양현혜, 「김교신의 ‘전적 기독교’ 신앙과 그의 기독교 사상」,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35 호, 2011, 121 쪽.

아니었다. 물론 몇몇 선교사들이 식민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수의 선교사들은 이미 오랜기간 안정화된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체제에 직접적으로 저항하기보다 현실에서 적절한 타협을 통해 선교활동을 보장받고자 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정치적 개입은 금기시 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른바 조선의 민족주의 기독교 인물들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는 교회와 정치의 분리, 탈정치성의 원칙을 신앙원리로 익혀온 서구선교사 각자 개인의 신앙관의 개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구출신 선교사들은 서구의 아들과 딸들이었다. 그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미지의 땅으로 보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구에서 태어나 서구종교문화의 직, 간접적 영향과 교육체제 속에서 교육을 받고, 남다른 신앙적 소명을 발견한 후 당시 서구의 기준으로 아직 문명화 되지 못한 불모의 땅을 향해 개인의 안락을 포기하고, 나아가 죽음까지도 무릅쓴 채, 자원한 이들이었다.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선교지에 도착 한 후, 그들이 피선교지에서 바라본 시선은 곧 서구일반이 피선교지를 바라보는 인식의 기준과 내용이 되었다. 역으로 피선교지에서 그들의 행위와 삶은 바로 피선교지의 토착민들에게 서구를 인식하는 창(窓)이자 서구에 관한 앎의 전부가 된다.² 당시 대부분 서구제국주의 국가 출신들이 가졌던 일차적 관심사는 조선의 정치적 해방보다는 개인의 구원을 시작으로 조선의 기독교화였다. 김교신 역시 정치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실제 상당히 신중하고 때론 다소 모호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김교신이 현실권력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일부 사실이다. 그러나 김교신은 정치체제가

² 김신, 「서구제국주의 선교의 인식론적 한계비판과 공존의 선교모색」,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6 쪽.

신앙에 간섭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의 태도는 명확했다.³

한편 한국적 기독교, 즉 김교신의 신학사상을 논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무교회주의이다. 그러나 실제 김교신의 무(無)교회주의가 문자 그대로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교신이 주장하는 무교회의 본래적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경계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은 남기고, 물질적 공간의 크기나 그곳에 속한 구성원들의 수(數), 그리고 물리적 교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기복적 신앙과 같이 이른바 기성교회에서 발견되는 비본질성을 거부하는 것이었다.⁴

역사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 강화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회는 기독교를 신앙하는 신도들의 구심점으로 기능해왔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기독교 경전, 성서의 가르침대로 둘 이상이 모여 예배하는 관습이 기독교 내부의 전통적 예배형식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김교신이 목격한 당시 한국교회의 수준은 상당한 정도의 양정성장은 이루고 있지만, 정작 내적 성숙이 양정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신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추구해야 할 성서에 대한 깊이 있는 영적 통찰보다 설교를 담당하는 목회자 개인의 자의적 해석에 경도되는 문제와 더불어 당시 식민정치체제에서 일본제국주의에 협조 또는 묵인하고 있었던 이른바 주류교단이라는 수직적 위계구조로 고착화된 기독교계의 행태에 대해 김교신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김교신은 “대개종교의 적(敵)은 무신론이나 과학설이나

³ 김용복,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본 성서조선」, 『조직신학연구』, 제 10 권, 2008, 327 쪽.

⁴ 무교회가 성직제도를 거부하고 이른바 ‘아마추어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기성교회의 미움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곧 목회자들에게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성직, 즉 ‘이름’에 매이면 자유롭고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곧은 소리를 못 낸다는 현실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비로써 부패에 저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교신, 노평구(편), 『김교신전집(1)』, 부키, 2001, 294 쪽.

유물사조가 아니라 실로 제사장 즉 총리사(摠理師), 목사, 노회(老會), 총회장 등의 ‘무신적 행동’이 가장 유력한 적이다.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나 여호와와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셨다.”⁵ 라고 주장하며 가르침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기독교 교계 내부의 형식주의를 단연코 배격했다. 결국 김교신의 형식주의에 대한 거부는 그를 무교회주의로 이끌게 한다. 그에게는 형식과 교권주의야말로 기독교가 첫 번째 계율로 금하고 있는 미신의 숭배와 같았다.⁶ 김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함석헌은 기독교는 논할 것(논쟁할 것)이 아니요 생활하는 것으로 말한바 있다. “소위 교회문제는 학문적, 사상적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천적 태도로 임할 때, 교회문제는 지극히 중대한 신앙의 근본에 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 함석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관에서 실천과 신앙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자, 기독교 신앙은 삶의 자리, 즉 실천적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국가를 초월한 이상적 기독교 국가주의자 김교신

1901년 기독교계의 정교분리 선언과 1903년부터 개신교 내부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한국기독교 지도세력이 당대 현실에 대한 책임적 대응으로부터 벗어나서 개인구원운동 차원의 개종과 교회확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⁷ 식민억압체제와 관련, 김교신의 기본적 입장은 물리력을 동원한 정치적 혹은 직접적 투쟁보다 당시 조선의 민중들에게 조선이 왜 식민화 되었는가? 다시 말해 일차적으로 식민억압체제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 신앙적 해석의 요구였다. 김교신은 식민지로 살아가던 조선민족에게 신의 계시와 섭리,

⁵ 김교신, 노평구(편), 『김교신전집(3)』, 부키, 2001, 66쪽 재인용.

⁶ 김교신, 노평구(편), 위의 책, 57쪽.

⁷ 임희숙, 「김교신의 민족교육과 기독교」, 『신학사상』, 제 128 권, 2005, 257쪽.

부활, 사랑의 공동체라는 종교적 개념을 적용하여 고난을 영광을 위한 수련 과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와 섭리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독립인 희망과 소망의 날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므로 김교신에게 보다 중요한 독립은 외적인 독립이 아닌 신앙으로 개개인이 독립을 이룰 수 있을 때 조선민족을 통해 인류의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다.⁸ 김교신을 해석하는 다양한 논의 가운데 김교신을 주로 일제하 반(反) 식민운동을 전개한 기독교 지도자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김교신이 주도적으로 간행한 1927년 창간호에서 1942년 폐간호까지 158호가 발행된 『성서조선』 그 어디에도 민족적 기독교라는 표현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교회’라든가, 후일 그 본질을 훼손할까봐 조심스럽게 쓰기를 거부하기까지 한 ‘무교회주의’라는 표현을 굳이 이렇게 ‘민족교회’ 혹은 ‘민족적 기독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의 교회사를 연구해 온 학자들이 보기에는 ‘무교회’라는 표현보다 ‘민족적’이란 표현이 그들 『성서조선』 동인(同人)들의 생각을 보다 잘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⁹ 이점은 민경배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교회사학자들의 연구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일제의 외압 속에서 김교신은 성서조선의 간행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제에 저항한다. 김교신은 조선민족을 사랑하는 길이 곧 조선에 주는 길이라 생각하고 성서조선 잡지를 창간하고 발간했다. 그는 성서조선에 대한 열정이 겨레를 사랑하는 만큼 남달랐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성서조선을 받으라고 주장했다.¹⁰ 한마디로 김교신에게 성서조선의 존속은 그의 ‘존재이유(raison d'etre)’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성서조선』을

⁸ 정호영, 「김교신의 인간화 교육사상」, 『교육철학』, 제 27 권, 2005, 308 쪽.

⁹ 김정환, 「김교신-민족적 기독교를 통한 종교입국 주창자」, 『韓國史市民講座』, 제 30 권, 2002, 290 쪽.

¹⁰ 김교신, 노평구(편), 『김교신전집(3)』, 부키, 2001, 140 쪽.

지속적으로 간행하기 위한 그의 특별한 노력은 부득이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¹¹ 결국 그 당시 식민시대라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그의 투쟁은 계몽과 기독교적 신앙을 통한 정신적 자립, 즉 기독교정신을 통한 일본제국주의의 극복이었다. 그의 무교회주의도 당시 일본의 직접적 감시와 통제가 개입할 수 있었던 공간적 교회보다는 무교회라는 그 물리적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기독교의 정신은 지켜나갈 수 있는 비대칭적 투쟁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일본제국주의 통치라는 상황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가벼운 몸’은 조직의 옷을 입고 신앙운동을 하는 것보다 비가시적 교회, 무교회주의가 영적인 구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더불어 무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성서조선’이라는 문서운동을 활용한 독립운동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제국주의 식민치하 한국기독교의 애국적 신앙인에게 일제의 감시를 회피할 수 있는 신앙형태는 무교회적 신앙이었다.¹²

동시에 그는 성서조선을 읽는 조선의 민중들에게 행간 사이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길 요구했다. “본지 독자들은 문자를 문자 그대로 읽는 외에 자간과 행간을 읽는 도량이 있기를 요구하는 때가 종종 있다. 이는 학식의 문제가 아니요, 지혜의 문제이다.”¹³

김교신이 조선의 독립을 갈망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김교신은 암울한 일제치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조선민족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김교신은 기독교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한 후, 그로부터 한국화 된 기독교를 넘어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김교신의 국가관은 조선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이상적

¹¹ 김용복,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본 성서조선」, 『조직신학연구』, 제 10 권, 2008, 321 쪽.

¹² 박신배, 「김교신의 선비신학」,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제 9 집, 2008, 139 쪽.

¹³ 김교신, 노평구(편), 『김교신전집(1)』, 부키, 2001, 326 쪽.

기독교 국가의 실현에 있었다. 김교신은 기독교, 그 중에서도 성서를 바탕으로 한 국가건설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는 과학적 지식, 상공업,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 등에 뿌리를 둔 국가는 그 기초가 공고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서를 바탕으로 한 국가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⁴ 김교신은 조선의 자립과 관련, 경제적 자립, 사회주의, 농업기술혁명, 앞선 과학기술의 도입 등은 단지 일시적 해결책으로 간주했다. 오히려 조선에 시급한 것은 보다 근원적인 것, 확고한 도덕적, 영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며, 이는 오로지 성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기독교 진리를 깨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¹⁵

김교신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보다 신앙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나아가 죽음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철저한 신앙인이었다.¹⁶ 나아가 그는 국가주의의 한계를 넘어 본질적 기독교의 실현을 통해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이상적 정치체제의 실현을 꿈꾸었던 기독교 이상주의자이기도 했다. 김교신이 가진 국가관은 섭리적인 신앙 안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항일적 애국관과 소망적 애국관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를 통해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민족주의적으로 구현했다면, 후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종말사상으로 구현했다. 즉, 현세적 국가에 대한 애국(민족주의)과 내세적 국가에 대한 애국(종말론 신앙) 모두를 추구하고자 했다.¹⁷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황은 김교신으로 하여금 결국 희망을 꿈꾸는 묵시적 신앙관에 이끌리게 하는 원인으로

¹⁴ 서현선, 「한국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종교적 대안들에 관한 연구」, 박경미 외, 『서구기독교의 주체적 수용-유영모, 김교신, 함석헌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53 쪽.

¹⁵ 백소영, 「김교신의 전적(全的)기독교」, 『기독교 사상』, 제 47 권 제 12 호, 2003, 237 쪽.

¹⁶ 김교신은 신앙의 원칙을 지킨 기독교도였다. 현실을 성서로서 증명, 찬미하고 아침하라는 강압에는 참을 수도 없고 또 연구도 할 수 없으므로, 도리어 옥쇄(玉碎)할 것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민경배, 『교회와 민족』,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369 쪽.

¹⁷ 오지원, 「김교신의 신앙과 국가관」, 『역사신학논총』, 제 21 권, 2011, 82 쪽.

작용하게 된다. “신도에게는 시련이 없지 않다. 때로는 더 많은듯 하다. 그러나 그 시련은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련을 내려서 우리는 거꾸러뜨리기를 즐겨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시련이 중(重)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주도(周到)하신 사랑! 무릇 시련에서 피함을 입은 자는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처리를!”¹⁸

III 결론: 희망의 종교인 김교신

종교가 맹신(盲信)과 아집(我執)의 부정적 행위에 함몰될 때, 종교가 가지고 있던 본래적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단지 종교적인 것들(religious things)만 남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명 형식으로서의 종교는 존재하지만, ‘종교적인 것들’은 더 이상 인간의 삶에 어떠한 울림도 줄 수 없다. 현대인은 소위 ‘희망’이라는 종교적 테마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 인류가 종교로부터 얻어온 두려우면서도 위대한 경이로움의 기억(Numinose)과 종교로부터 파생된 유무형의 가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오늘이라는 ‘현재시점’에 집중하는 것이 이른바 현대인(modernist)이다. 이들 현대인은 곳곳하게 스스로를 비종교인, 무신론자로 칭하며, 이들이 삶을 영위하는 곳에서 종교는 비근대성과 인간억압의 상징으로 규정되곤 한다. 현대인의 종교관은 종교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무관심을 넘어 ‘종교적 문맹’(religious illiteracy)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비단 과학과 합리성, 즉 문명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현대인의 냉담한 태도의 원인은 결국 종교가 원형적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¹⁸ 김교신, 노평구(편), 『김교신 전집(2), 신앙론』, 부키, 2001, 16 쪽.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날(the sacred day)이면 성당과 교회 그리고 모스크로 향하고 있다. 이들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현대인이자 동시에 종교인(homo religious)인 이중적 존재들이다.

김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앙과 삶의 ‘조화로움’의 추구이다. 당시 외래종교라 할 수 있는 기독교를 선교사와 교권을 가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다수 민중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점을 자각한 후, 일찍이 기독교의 원형적 정체성을 고민한 이가 바로 김교신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 정체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적 기독교(Korean Christianity)’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이기도 하다. 김교신이 1942년 <성서조선>에 쓴 ‘조와(弔蛙)’는 ‘얼어 죽은 개구리를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흑한에도 살아남는 민족적 생명력의 메타포를 상징한다. 일본제국주의가 절정으로 치닫고, 희망이 사라진, 어두움이 가장 짙은 바로 그 때, 역설적으로 김교신은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희망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망의 때를 기다리는 김교신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유리된 존재였다.¹⁹ 그러나 불순한 행동가이자 사상가가 걸어간 그 길을 통해 우리는 희망이라는 비합리적이고 불확실한 테제를 갈구하는 종교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¹⁹ 조와(弔蛙)에서 흑한이 걷힌 조그마한 못 속에서 살아남은 두어 마리 개구리를 보고 외친 “아 전멸은 면했구나!”하는 그의 음성은 『성서조선』 폐간으로 까지 몰고 가게 한, 거래의 장래에 대한 불멸의 희망을 목메어 외친 기도이자 부활신앙의 재현이었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438 쪽.

참고문헌

- 김교신, 노평구(편), 『김교신전집(1)』, 서울: 부키, 2001.
- 김교신, 노평구(편), 『김교신 전집(2), 신앙론』, 서울: 부키, 2001.
- 김교신, 노평구(편), 『김교신전집(3)』, 서울: 부키, 2001.
- 김신, 「서구제국주의 선교의 인식론적 한계비판과 공존의 선교모색」,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용복,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본 성서조선」, 『조직신학연구』, 제 10 권, 2008, 306-335 쪽.
- 김정환, 「김교신-민족적 기독교를 통한 종교입국 주창자」, 『韓國史市民講座』, 제 30 권, 2002, 283-295 쪽.
- 민경배, 『교회와 민족』,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박신배, 「김교신의 선비신학」,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제 9 집, 2008, 122-156 쪽.
- 백소영, 「김교신의 전적(全的)기독교」, 『기독교 사상』, 제 47 권 제 12 호, 2003, 230-249 쪽.
- 서현선, 「한국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종교적 대안들에 관한 연구」, 박경미 외, 『서구기독교의 주체적 수용- 유형모, 김교신, 함석헌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 양현혜, 「김교신의 ‘전적 기독교’ 신앙과 그의 기독교 사상」,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35 호, 2011, 109-140 쪽.
- 오지원, 「김교신의 신앙과 국가관」, 『역사신학논총』, 제 21 권, 2011, 67-112 쪽.
- 임희숙, 「김교신의 민족교육과 기독교」, 『신학사상』, 제 128 권, 2005, 257 쪽.
- 정호영, 「김교신의 인간화 교육사상」, 『교육철학』, 제 27 권, 2005, 297-321 쪽.